

LA에서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 세미나

한국도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LA와 USC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 11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전세계 외국인 노동자'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적절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미국, 유럽 등



11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전세계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 학술회의에서 한국, 미국, 유럽 출신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백종춘 기자>

지의 교수 및 관계자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한국정부의 정책, 인권침해문제 등을 놓고 이날 약 8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합법 체류 외국 노동자와 장기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간의 보이지 않는 불평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보다는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해온 외국인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현실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허용하고 있어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캘스테이트 LA 유의영 교수는 "핏줄은 한국인인데 국적이 중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는 조선족 노동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